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1/4분기 유로지역 경기회복세 예상 밖 호조

- 유로지역의 2011년 1/4분기 실질 GDP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.
 - EU 통계청은 2011년 1/4분기 유로지역 실질 GDP가 전분기대비 0.8% 성장, 전년동기대비 2.5%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, 이는 블룸버그 등 전망기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임.
 - 독일이 전분기대비 1.5% 성장하면서 유로지역의 성장세를 견인했고, 프랑스는 2006년 2/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(전분기대비 1.0%)를 기록했으며, 오스트리아도 양호한 성장세(전분기대비 1.0%)를 시현함.
 - 특히 추가 구제금융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그리스도 5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(전분기대비 0.8%)으로 전환됨.

- 독일은 수출 외에도 내수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짐.
 - 블룸버그는 2011년 1/4분기 독일의 실질 GDP가 전분기대비 0.9%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실제로는 이보다 0.6%p 증가한 1.5% 성장함.
 - 이는 독일 기업들이 신흥국의 수입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경기회복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.
 - 독일의 3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7.3% 증가하고 전년동기대비 15.8% 증가하였는데, 이는 집계가 시작된 1950년 이래 최대치이자 전망기관 전망치(전월대비 1.1% 증가)를 크게 상회한 수준임.

- 유럽위원회(EC)는 이에 따라 세계경기 회복과 유로지역 체감경기 상승으로 유로지역 경기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.
 - EC는 '경제 전망 보고서'에서 유로지역의 2011년 경제성장률이 2010년 가을 전망치보다 0.1%p 상향조정되어 1.6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 - 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지역의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2010년 6.0%에서 2011년 4.3%, 2012년 3.5%로 줄어듦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함. (EC 등, 5/16)